

# 工業立國 飛躍의 先導基地

## 蔚山 石油化學系列工場竣工

### 調味料에서 양복지까지, 生活유택하게

#### 輸出効果 年 6 億달러

음식을 만들때 쓰는 調味料에서부터 술이나 식초 또는 고무신에 이르기까지의 생활필수품들, 각종 양복지나 웨터內衣는 물론이고 비닐장판이나 비누 또는 페인트와 접착제 이불솜과 어망 가방에 이르기까지 아주 多様な 製品들이 이것이 石油化學계열 工場에서 만들어지는 最終製品들이다. 石油化學계열工場이 現代산업의 寵아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검은 액체에 불과한 石油에서 이렇듯 이루 헤아릴수 없는 많은 필수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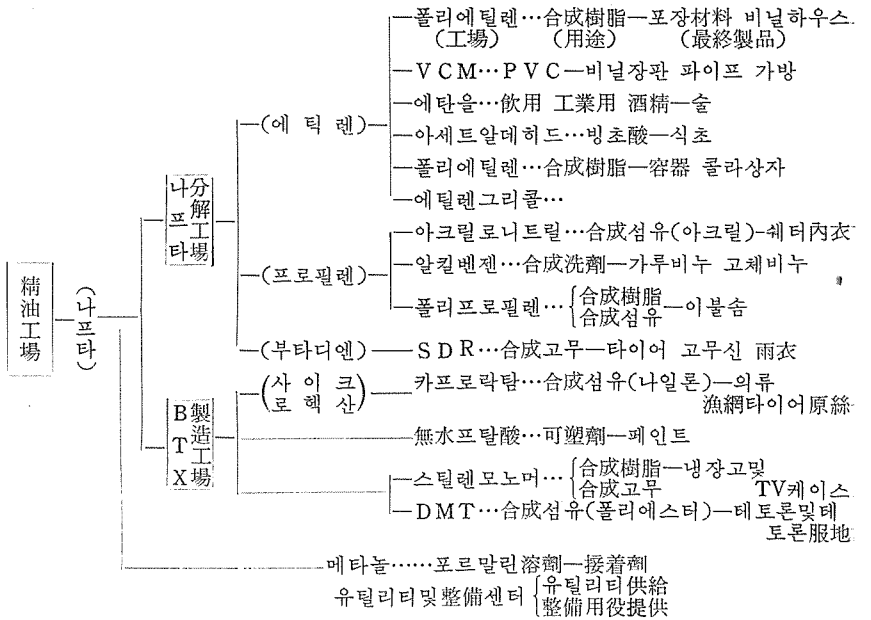
이와 같이 관련효과가 큰 石油化學계열 工場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준공을 보게되었다. 총면적 926,000평의 허허벌판 위에 石油化學콤비나트의 核을 이루는 나프타분해센터를 비롯하여 8개 石油化學工場이 31日 준공의 타이프를 끊음으로써 蔚山하늘에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石油化學계열 工場건설 1단계 計劃 13개 工場 가운데서 이미 작년에 완공된 메타놀공장과 유틸리티 및 整備센터등 2개 工場을 포함 11개 工場이 가동을 보게된 셈이다.

지난 68年 3月 첫삽을 든지 만 4年8개월만에 결실을 본것. 총 공사비는 外貨 1億9,100萬달러 內資 580,000.40萬달러 등 모두 2,409,000.40萬달러로 이 工場이 준공됨으로써 年間 75,000萬달러의 外貨가 절약될 뿐 아니라 관련제품수출액은 연간 6億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효과만도 2,200명.

이와 같이 엄청난 建設효과를 지니며 새로운 科學기술의 結晶이자 現代공업의

상징이라 불리우는 石油化學관련工場을 정부가 綜合製鐵과 함께 2차 5개년 計劃의 上정사업으로 내세우고 오랫동안의 産苦 끝에 결실을 맺게 한 것은 政府의 近代化 내지는 工業化를 향한 의욕의 結晶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개발이 本格化

한지 불과 20年밖에 지나지 않은 石油化學계열工場을 이날 한꺼번에 준공, 蔚山一帶를 名實공히 韓國의 「버밍검」으로 만든 것은 工業化를 통한 經濟力의 배양만이 近代化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朴대통령의 工業化에 대한 「信念」의 구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朴大統領의 祖國近代化에 대한 집념때문에 처음 개발한지는 50년이 지났으나 본격적인 活用이 시작되던지 20년에 불과한 裝置산업으로서의 石油化學 相關工場이 이땅에 뿌리박게 된 것이다. 石油化學공업은 지난 20年代에 美國에서 처음으로 개발, 그 후 30年代에는 나일론 合成에 성공했으며 이를 본격화시킨 것은 50年代의 일이었다.

이 부문에 있어 가장 先進國인 美國은 지난 15年동안 年 平均 15%의 성장을 이룩했고 日本은 60年代에 와서 이 방면에 눈을 뜨기 시작, 지난 10여년동안 年 平均 47%의 높은 成長率을 보여 지금은 美國 다음가는 石油化學공업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전세계가 온통 石油化學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 相關工場을 大舉 준공함으로써 東南 「아시아」에서는 日本